

#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철학적 함의

이 영 희  
 (숙명여대 교육학과)

칼 로저스(Carl R. Rogers, 1902 - 1987)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을 상담의 목표로 한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다같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성장에의 의지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에게 있는 자아실현의 지향성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하나의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인간관에 관련된 몇 가지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실존적 자아로서의 개인을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개인의 주관성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인간주의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인간의 주관성과 자유를 인정하면서 객관적 탐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인간의 사회화와 사회의 인간화에 관한 관점이다. 인간중심 상담에 의한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 인간과 사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 함의를 분석하고 전개시켜 봄으로써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의의와 그것이 갖는 한계성 그리고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 1. 서론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person-centered) 상담이론은 내담자중심(client-centered) 상담이론이라고도 한다. 로저스 자신이 client-centered or person-center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Rogers, 1983), 그의 생애 말년에 가서는 a person-centered approach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로저스가 사용한 상담이론의 다양한 명칭들은 nondirective counseling, client-centered therapy, student-centered technique, 그리고 group-centered leadership과 같은 것들이다(Rogers, 1980).

이러한 로저스의 상담이론들의 명칭들이 암시하듯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라는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성장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인적 일에 관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담이론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이론과 사회개혁이론, 나아가서는 핵전쟁으로까지 물고갈 수 있는 국제간의 갈등문제로, 세계평화를 위한 이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로저스의 관심과 활동범위 자체가 그러한 넓은 영역에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Goodyear, 1987). 로저스는 그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이 인간을 개혁하고 세계를 개선하는 한

조용한 혁명(a quiet revolution)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믿었다(Rogers, 1977). 그러한 목적을 위해 로저스는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개혁과 평화의 사도 역할을 했던 것이다(Rogers, 1987). 물론 로저스가 정치적으로 행동적이 되었던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보면 그가 75세였던 1977년 이후였다(Goodyear, 1987).

그런데 팔목할 만한 사실은 그러한 로저스의 인간개혁 사상이나 사회개혁의 실천이 그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응용하는 데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오늘의 세계와 오늘의 인간에 대하여 하나의 이상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이상을 위한 실천의 방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로저스의 이상사회 혹은 이상세계는 이상적 인간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가 이상사회이며, 또한 그러한 이상사회의 실현은 이상적 인간상의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상적인 변화는 인간개혁과 사회개혁의 두 측면에서 함께,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다.

로저스의 이상적 인간상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fully functioning person)'이다. 이것은 인간중심 상담의 가설적 궁극적 목표이면서 이상적 사회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란 하나의 이상적 목표이므로 실제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끊임없이 그러한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이다. 로저스는 이러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The fully functioning person is my tentative definition of the hypothetical end-point of therapy, my description of the ultimate picture which our actual clients approach but never fully reach, the picture of the person who is continually learning how to learn. I have come to like this description, both because I believe it is rooted in and is true of my clinical and educational experience, and also because I believe it has significant clinical,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s(Rogers, 1983, p.290).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란 개념은 로저스의 인간관을 한 마디로 표현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인간관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로저스의 철학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한 철학적 함의를 제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로저스는 세 가지 철학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사회화된 인간을 뜻하므로 이상적 사회에 관한 철학, 즉 사회철학적 함의를 갖는다. 둘째,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탐구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뜻하므로 과학적 결정론에 관한 과학철학적 함의를 갖는다. 셋째,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실존적 자아 또는 실존적 인간을 뜻하므로 인간의 실존에 관한 실존철학적 함의를 갖는다(Rogers, 1983).

이러한 철학적 함의들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간중심 상담의 인간관을 개괄적으

로 고찰해 본 후 그것이 함의하는 실존주의적 인간과 심리학적 인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간을 차례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것은 로저스가 제안한 세 가지 철학적 함의를 그 순서만 바꾸어 본 것이다.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을 이상으로 하는 그의 인간관이 이론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발전해 온 과정으로 볼 때, 실존주의와의 접목이 가장 먼저 일어났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철학의 영향과 함께 인간주의 심리학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로저스의 활동이 사회교육과 인간해방의 영역에까지 확대되면서 그의 인간관이 갖는 사회철학적 함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로저스의 이론적 발전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명의 논리적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실존주의적 인간, 심리학적 인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간의 순서로 바꾸어 논하려 한다.

## II. 인간중심 상담의 인간관 :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을 표현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로저스가 1952년 또는 1953년경에 쓴 논문의 제목 “The Concept of the Fully Functioning Person”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그 논문은 출판이 되지 못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로저스는 그의 저서 *On Becoming a Person* (1961)에서 “A Therapist View of the Good Life : The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장을 쓰면서 그 개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그것이 자신의 상담이론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관임을 확인한다(Rogers, 1961).

인간중심 상담이론이 추구하는 바, 즉 성공적인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철저하

게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로 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내담자는 과학자의 연구대상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처럼 되어서도 안 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한 인간 대 한 인간(a person to a person)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ogers, 1961,1983).

이렇게 볼 때 ‘내담자중심 상담’이라는 표현은 내담자의 인간(person)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다. ‘인간중심 상담’은 내담자로서의 인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오해를 피하게 하지만 역시 ‘인간 대 인간’이라는 관계를 나타내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로저스는 분명히 그것을 상담자로서의 인간과 내담자로서의 인간을 다같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상담의 관계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므로 ‘인간중심 상담’은 자연히 상담자의 인간과 내담자의 인간을 다같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로저스는 상담자의 역할을 먼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전제한다. 상담자는 촉진적인 조건들과 성장을 돕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촉진자로서의 상담자의 태도, 자세, 능력을 서술하는 내용은 바로 그 상담자 자신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윤호균, 1983).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하나의 이상형이다. 상담자의 이상이지만 그러한 인간으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주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담자로서 자신이 그런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기능에 가까이가게 될 때 그것의 실현가능성과 의미를 체험

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자신이 상담자로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 준다. 그것은 아직은 합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식 상태 또는 어떤 능력의 작용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When I am at my best, as a group facilitator or as a therapist, I discover another characteristic. I find that when I am closest to my inner, intuitive self, when I am somehow in touch with the unknown in me, when perhaps I am in a slightly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in the relationship, then whatever I do seems to be full of healing. Then, simply my presence is releasing and helpful. There is nothing I can do to force this experience, but when I can relax and be close to the transcendental core of me, then I may behave in strange and impulsive ways in the relationship, ways which I cannot justify rationally,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my thought processes. But these strange behaviors turn out to be right, in some odd way. At those moments it seems that my inner spirit has reached out and touched the inner spirit of the other. Our relationship transcends itself, and has become a part of something larger. Profound growth and healing and energy are present (Rogers, 1985).

여기서 로저스가 말해주는 체험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로저스 자신도 가장 잘 기능할 때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

명히 체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하나의 잠재능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라 본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완전성을 향해서 성숙해 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Schultz, 1977).

인간이면 누구나 더 완전하게 기능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로저스의 기본적 인간관이다. 완전한 기능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성숙되고 더 완전한 인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Rogers, 1961).

로저스는 이러한 지향성이 우주적 현상임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인간관이 과학적 타당성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경향은 모든 유기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이라는 것이다. 모든 유기체는 항상 추구하고, 항상 시도하고, 스스로를 유지해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또한 성장시키면서 완전성을 향한다고 본다 (Rogers, 1980).

그러나 이것은 유기체의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게 된다. 현대 물리학과 동양의 신비주의를 연관시켜서 설명한 카프라(Capra, 1975)와 프리고진(Prigogine, 1979, 1984)의 과학적 세계관에서 로저스는 그러한 우주관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감정적인 철학적 가설이 된다.

한 개체가 태아로부터 성장해가는 단계는 생물이 진화해 가는 과정의 단계를 비슷하게

반복한다고 한다. 인간의 의식기능도 그러한 성장의 결과, 즉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의 단계를 거쳐서 의식의 단계로, 그리고 초월적 의식의 단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진화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로저스는 자신이 일상적 의식의 차원을 초월하는 더 넓은 세계, 즉 정신적으로 자신과 타인이 교감할 수 있는 차원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로저스는 이러한 초월적 의식을 동양의 불교나 도가(道家)의 사상과 관련시켜서 설명하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종교는 참자유의 체험을 약속하고 새로운 의식의 차원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또한 종교적 교리로 신도들을 구속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율이 있는 것이다.

로저스는 자신이 기독교를 떠났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적 배경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의 교회적 구속을 민감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본다. 그 반면에 불교나 도가의 사상을 하나의 철학으로 접할 수 있었으므로, 종교적인 구속의 측면이 개입되지 않은 사상적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도가의 사상은 도교라는 종교와 상관없이 접할 수 있으므로, 로저스의 상담이론이 추구하는 이상과 일치하는 면을 가질 수 있다.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도가적인 이상형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저스는 노자(老子)의 무위(無爲) 개념이 촉진자로서의 상담자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본다(Rogers, 1980).

‘무위’는 간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지

배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도자나 상담자로서의 상대를 의식하지도 않게 하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이형득, 1993).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내담자가 성공적인 상담을 통해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은 상담자의 기능이나 능력을 말할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상담자에게는 어떤 정신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초월적 의식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내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신력보다는 오히려 신체적인 기능의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

성공적인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모든 체험에 대하여 수용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몸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자기 몸을 통하여 들어오는 느낌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느낌을 자유롭게 제약이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곧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다. ‘Person’이라는 개념에서 ‘organism’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라 본다(Rogers, 1983).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신체적인 경험이 이 끌어가는 대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인간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이기도 하지만, 상담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로저스 자신이 상담자로서의 특수한 정신력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상태도 바로 이러한 신체적 자유, 신체적으로 완전히 기능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임을 말한다. 상담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무위’를 실천할 때 내

담자도 스스로 그러한 '자유'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몸의 감각기능이 완전히 기능하게 하고, 그러한 신체적 기능을 신뢰해야 한다는 로저스의 주장은 신체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경멸하는 서구의 '이원론'적 사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는 플라톤(Platon)의 이원론(二元論)과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이원론이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대립시키면서 신체적인 것을 억압하도록 해왔다.

로저스의 인간관은 이러한 이원론을 배격한다. 그런 점에서 도가(道家)적인 일원론(一元論) 또는 자연주의적 일원론과 부합하는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원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일지라도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관념론적인 틀에 얽매이게 된다. 종교적 구속은 윤리적 구속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동양의 유교는 일원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윤리적 관념으로 신체적 자유를 억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불패, 불교는 유교보다 덜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가사상은 불교보다도 덜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저스가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자신의 '이상적 인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념적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도가적 인간이야말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이 흘러내려가듯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표현되고, 전달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기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중심 상담의 인간(person)은 마음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몸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몸과 마음으로 된 인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마음만을 연구하겠다는 심리학은 인간을 연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재를 정신적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인간의 실존(實存)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개인의 신체적인 제한점에 국한시켜서 원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볼 수 없게 된다(Quinn, 1993).

로저스는 몸과 마음으로 된 인간의 완전한 기능을 이상(理想)으로 하는 그의 인간관이 함축하는 철학적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제한한다. 그것은 이론화된 논의라기보다는 함축적인 제안이다. 로저스의 사상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안한 내용들을 발전시키고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 III. 실존적 인간 : 주관성과 자아의 문제

로저스가 1950년대 후반 시카고 시절에 처음으로 접하게 된 철학자들이 부버(Martin Buber)와 키에르케고어(Soren Kierkegaard)였다. 로저스는 그 당시 자신의 상담이론을 정립해 가면서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Rogers, 1957)"라는 논문을 완성할 때였는데 로저스는 자신의 접근방법이 상담에서는 새로운 이론임을 확인하고 그것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강연장에서 부버와의 '대화'를 통한 만남(Buber, 1957)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 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버의 '나와 너(I-Thou)' 관계는 로저스의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와 유사한 점을 함축한다. 부버는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는 인간'으로 보고,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Buber, 표재명 역, 1977). '나와 그것'의 관

계가 아닌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상실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부버의 '만남'의 철학 사상은 키에르케고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인간관에 있어서 로저스와 부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부버는 인간의 양면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면과 신뢰할 수 없는 면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상담자는 내담자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나 내담자 쪽에서는 상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담자가 상담자 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충분한 상호이해 내지는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사람이든 신뢰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Friedman, 1986).

'나와 너' 관계의 대화를 추구하는 부버는 '인간 대 인간' 관계의 필요조건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저스는 상담을 통한 인성변화의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한다. 로저스는 더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로저스에게, 저서들을 통해서이지만, 키에르케고어와의 만남은 더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주의 철학을 접하면서, 로저스는 자신이 이미 자생적 실존주의자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Rogers, 1980). 키에르케고어의 글들(Kierkegaard, 1941a,b)에서 로저스는 자신의 견해가 깊은 통찰력과 신념으로 표현되어 있음

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구사해보지도 못한 생각과 느낌들이 키에르케고어에 의해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로저스와 키에르케고어 두 사람 사이에는 100여 년이란 세월이 있지만 로저스는 키에르케고어를 가까운 친구처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키에르케고어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체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로저스는 자신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로 보았을 때 그것은 실존적 삶이라고 주장한다(Rogers, 1961). 가식적인 것, 당위적인 것, 남들의 기대, 남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체험을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뜻한다.

특히 로저스는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느끼는 것, 즉 유기체로서의 자신의 온갖 체험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자유롭게 기능하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기체적 체험이 억압되지 않고 자유로울 때는 '느낌으로서 옳은 것(What feels right)'이 그대로 신뢰할만한 것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으로부터 개인의 인성이 형성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삶이 실존적 삶이라는 것이다(Rogers, 1961).

이것은 실존주의가 말하는 "주관성이 진리이다"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진리보다는 주관적 진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아는 실존주의가 말하는 '단독자'이다. 키에르케고어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하느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이다(표재명, 1987). 그러나 인간의 실존을 '단독자' 또는 '예외자'로

본 키에르케고어의 철학은 인간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표재명은 이러한 비판이 키에르케고어의 진의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키에르케고어는 사회적, 역사적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 앞에서는 ‘단독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역사적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평등성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데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주관성의 진리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체험하는 것, 그것에 대한 깊은 내면적 관심이 진리라는 뜻이다. 그것은 객관적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객관적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적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으로 새롭게 하는 삶을 말하게 된다.

키에르케고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실존적 문제의 해결을 구한다면,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는 하느님의 대행자가 아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울 수 있으나, 그것은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내면에 있는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도움인 것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실존을 ‘절망’이나 ‘고독’ 또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표현했지만(Kierkegaard, 1941b), 로저스는 인간실존을 자기실현적인 힘의 원천으로 보았다. 유기체로서의 인간 존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로저스의 기본적 믿음이다.

이것은 실존으로서의 인간의 자아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자아를 영혼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몸으로 보느냐가 문제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에게는 영혼의 갈등이라든지 마음의 주관성 같은 것이 자아의 기본문제로 여겨졌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이원론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주관성’을 ‘내면성’으로 보고 그것을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해하고자 한 것도 정신적 자아 또는 영혼이나 마음으로서의 자아를 참된 자아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로저스는 참된 자아를 유기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을 생각한다. 이러한 로저스의 인간관은 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 쉘르트르(Sartre)의 사상에서 더욱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쉘르트르는 몸을 ‘대상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몸의 참 의미를 제외한다고 역설한다. 참된 몸은 객관적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된 몸’이다. 그것은 주관성으로서의 몸을 의미한다. 체험된 몸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의식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자신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영혼도 몸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쉘르트르는 “영혼은 곧 몸이다”라고 말한다. ‘인간’, ‘자아’, ‘영혼’ 그리고 ‘마음’도 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가 올바르게 파악된다는 뜻이다(반 퍼슨, 1985).

쉘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유신론적이 아니라 무신론적이다. 하느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물론적 실존주의이다. 이런 점에서 로저스의 ‘실존적 인간’ 개념은 쉘르트르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로저스는 ‘the nonconscious organic mind’라는 개념을 쓴다. 마음은 유기체적



기능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이다(Rogers, 1985, p.566). 그러나 철학자 사르트르와 심리학자 로저스는 그들의 학문적 관심과 출발점에서 서로 다르다. 사르트르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실존적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인간존재와 사회구조적 관계를 문제의 쟁점으로 시작한다. 인간존재의 상황적 조건이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면을 문제시한다. 한편,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문제로 시작하면서 점차로 사회적 인간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넓혀간다. 인간을 실존적 존재로 이해하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개인의 내면에 있는 어떤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로저스는 기독교적인 해답을 구하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의 의식을 확장시킨다. 동양적인 불교나 도가의 사상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것이라 본다. 그것은 이미 실존적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대된 의식을 전제하는 인간상이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우주적인 어떤 질서와 공명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을 말한다.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 로저스의 믿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적극적인 로저스의 인간관이다.

#### IV. 심리학적 인간 : 과학적 결정론과 자유의 문제

로저스는 심리학에서 '제3학파'라고 하는 인간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정신분석적 심리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다르게 인간주의 심리학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과학적 심리학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로저스는

소련과 동구권에서까지도 새로운 인간관 내지 인간개념을 과학적 심리학에 도입한 심리학자로 소개되고 있다(Orlov, 1992).

그러나 제3의 심리학을 기존의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심리학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신분석적 방법과 행동주의적 방법을 도외시하는 인간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심리학을 전체적으로 더 온전한 인간과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간주의 심리학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로저스의 의도는 인간주의 심리학의 주관적 경험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객관적 관찰을 방법론적으로 함께 적용하는 인간주의 심리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Combs, 1990). 이것은 심리학의 과학성에 관한 문제이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며,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므로 과학적 탐구에 관련된 인간관의 문제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유는 환상인가?

스키너(B.F.Skinner)에 의해 대표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자유를 환상이라고 한다(Skinner, 1948).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나 희망이나 감정 또는 생각 때문에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은 일상언어적인 견해이지 과학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본다(Skinner, 1953).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이 강화의 방법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고 조건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공학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행동의 효과적인 제어방법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행동주의

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때 행동의 자유라는 것은 행동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유에 불과하다.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뿐이다. 그러나 행동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의 객관적 원인과 그것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 다를 뿐이며, 과학적으로 행동의 원인을 말하자면 객관적인 원인만이 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과학적 원인 설명에서는 주관적인 느낌, 즉 행동의 동기나 목적 같은 것이 개입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자유의 문제가 제기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Skinner, 1948).

로저스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에 상담자로서의 전문직을 개척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상담자로서의 그의 체험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존주의적 인간관에서 그의 철학적 뿌리를 찾고 있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를 행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자기자신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각하게 될 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온다는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가장 중요한 해결의 힘이 된다. 그러므로 로저스는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Rogers, 1983).

그런데 로저스에게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자신도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방법론적 바탕이 바로 실증주의적 과학철학이다. 논리실증주의의 철학이 과학철학으로 발전하여 과학적 방법론을 이론화한 것이 실증주의

과학철학이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일원론을 주장하는 것이며, 모든 과학적 설명은 법칙을 전제로 한 연역 논리적 설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Hempel, 1966).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행동의 설명을 위한 법칙을 탐구하는 과학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처럼 관찰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는 법칙이어야 하므로 객관적인 현상들간의 법칙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적 요소는 관찰 불가능한 것이므로 과학적 법칙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로저스는 인간행동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법칙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을 결정하는 객관적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과학적 결정론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가능한가? 로저스는 과학적 설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주관적인 선택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역설(paradox)이라고 본다(Rogers, 1983).

이 역설은 우주 속에서의 인간존재가 갖는 불가피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로저스는 이 역설적인 인간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간존재의 현상도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로저스는 이 역설을 해소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실증주의적 객관성과 실존주의적 주관성을 조화시켜 주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탐구자는 주관적 추측을 해야 한다. 대상세계에 대하여 주관적으

로 느끼는 것, 예감하는 것, 또는 상상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 탐구자의 창조성이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가설들이 모두 타당할 수는 없다. 주관적 느낌은 아무리 분명하게 느껴져더라도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탐구자는 그러한 주관적 느낌에 속지 않고 과학적 방법을 개입시켜서 주관적 추측들을 검토해야 한다. 로저스는 상담자로서 자신이 느끼는 것, 추측하는 것 또는 예감하는 것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을 중요시했다. 그의 주장과 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러한 검증자료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과학적 심리학이 인간의 주관성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인간주의 심리학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실제 상담과 탐구의 방법을 통해 보여 주었다(Rogers, 1961).

로저스는 상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관성, 자유의지, 자아실현의 힘, 방향성 등을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했다.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 두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이 그러한 신비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심리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로저스는 심리학이 뉴턴의 물리학을 닮고자 하지 말고, 진정한 '인간과학'이 되고자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성과 감정을 가진 '전인적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감각기관으로 지각하는 세계만이 아닌 다른 체험의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해야 하리라는 주장을 했다(Rogers, 1973). 뉴턴 물리학에 관한 로저스의 언급은 카프라와 프리고진 등에 의해서 주창된 신과학운동의 영향에 근거한 것이었다. 특히 카프라는 그의 저서 *The Tao of Physics* (Capra,

1975)에서 현대 물리학이 동양의 신비주의와 부합되는 새로운 세계상을 보여 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로저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카프라는 현대과학도 신비적인 현상을 인정하며 그것은 기계론적인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로저스는 카프라의 이러한 주장을 신비주의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받아들인다. 그는 "전체우주는 유폴론적 우주가 아니다"(Rogers, 1984)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카프라의 주장이 불러 일으키는 오해이다. 카프라는 현대과학을 너무 쉽게 동양적인 신비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현대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은 신비화하면서 마치 신비주의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이 대등한 신빙성을 갖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자연현상에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현상이 아닌 비선형적이고 '카오스적'인 현상이 있다. 구름의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현상이나 눈송이의 모양이 모두 다르게 만들어지는 현상도 카오스적이라고 한다. 생명체가 성장하면서 그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도, 인간의 언어가 다양한 것도 얼핏 보기에는 기계적 질서는 없는 것 같다.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과정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설명하고자 하면 어떤 종류의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카오스 이론(chaos theory)' 또는 '카오스 패러다임(chaos paradigm)'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론은 종래의 과학이 신비적인 것 또는 혼돈현상으로 덮어 두었던 많은 것들을 모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인 체계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컴퓨터에 의거한 모의 방법으로 그것의 혼돈적인 면과 질서적인 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의식세계도 이러한 카오스 이론의 도입으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주를 하나의 물질적 우주로 보면서, 인간의 의식기능도 그러한 우주적 현상의 한 부분으로 진화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물질적 세계 자체가 결정론적 설명이나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온갖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주관성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글리크, 박배식·성하운 역, 1993)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인간의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로저스의 주장은 옳다고 본다. 과학적 방법 자체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지금의 과학에 맞도록 탐구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특히 인간과학인 심리학이 인간의 주관성을 도외시한 채 행동으로 나타나는 관찰이 가능한 현상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 상담자로서의 로저스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담자가 자아실현을 위한 힘을 체험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내담자의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힘은 신비스럽다고 할만큼 보편적인 것이다. 인간 안에 누구나 그런 내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저스의 심리학은 이러한 인간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인간주의 심리학이다. 과학적 방법을 위해 인간을 축소시키지 않고, 인간을 그의 가장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까지 그대로 받아들들이면서 객관적 설명을 시도하는 과학으로 발전해야 하는 심리학이다.

## V. 사회문화적 인간 : 사회화와 개혁의 문제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인간(person)으로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같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 성숙의 가능성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실현의 의지 또는 지향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은 실존주의적 인간관과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단독자 또는 예외자로서의 각 개인은 자신의 주관적 체험에 충실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러한 실존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촉진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내담자를 지시하거나 내담자를 위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존주의적 인간관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서는 실존적 인간이 멋있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현실 사회 속에서는 사회성의 부족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이 된다.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이러한 실존주의적 인간관과 관련되어 내담자를 자기도취증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Fuller, 1982). 스키너도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인간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존주의적 인간관을 주장하는 이론들을 비판했다. 실존주의적 자유와 자율은 오늘의 인류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행한다는 것이다(Skinner, 1978).

로저스는 스키너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을 의식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한다. 사회적 필요를 위해 개인의 주관적 자유를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반대한다. 자기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

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평화로운 전체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Rogers, 1987e). 따라서 인간중심상담 이론이 해답해야 할 문제는 과연 실존적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냐는 것이다.

로저스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면서 인간 대 인간의 상담관계를 집단 속에서 확대시켜 간다. '참만남 집단(the encounter group)'은 집단 성원들의 자기실현 의지를 촉진시키는 상담을 집단 속의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본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집단전체의 발전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정이라는 집단, 기업체라는 집단, 교회라는 집단, 학교라는 교육집단, 그리고 정부라는 집단 속에서도 인간중심 상담이 개인과 집단차체에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Rogers, 1987a).

또한 집단간의 갈등문제도 로저스는 집단 대 집단의 참만남으로써 해결되고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대간의 차이문제, 여성차별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문제, 동서의 이념적 대결문제, 핵무기와 세계평화의 문제 등에 관련된 대립 집단들의 참만남은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 상담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촉진시켜 주는 힘이 되듯이 한 집단이나 조직체, 또는 한 국가에 대해서도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Rogers, 1987c). 다시 말하자면,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자기집단의 존재의의와 집단적 자아실현의 방향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며, 이것은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한 힘이 될 뿐 아니라, 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집단 속에서의 참만남이

나 집단과 집단의 관계로서의 참만남은 개인들을 의식화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특별한 의미를 이론화한 프레이리(Paulo Freire, 1970)의 '의식화 방법'을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의 방법과 비교해 보는 것은 로저스 자신이 시도해 본 것이기도 하지만(Rogers, 1987b), 교육학, 심리학 및 사회철학적인 관심문제가 되고 있다(O'Hara, 1989).

프레이리와 로저스는 개인의 의식화를 통한 사회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점에서만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에서도 서로 일치한다. 개인적인 인간의 변화 못지 않게 사회기구와 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로저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집단적인 참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개혁이기 때문에 로저스는 이것을 '조용한 혁명(a quiet revolution : the impact of person-centered approach)'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ogers, 1977).

조용한 혁명으로 사회개혁이 일어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개인에게서 의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의식화된 개인의 의식이 제각기 다른 방향을 추구한다면 집단적 힘이 될 수 없다. 사회개혁은 집단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로저스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화된 인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집단적 마음(a social collective mind)'을 말한다(Rogers, 1977).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집단적 마음이 가능한가?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객관적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사회적 마음은 일종의 조건화된 마음이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중요시하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제한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회적 마음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Skinner, 1971). 그러나 로저스는 그러한 조건화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요된 방법이 아닌 자율적 방법으로 개인이 의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의식화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식화를 촉진시키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개인 스스로가 그런 의식화가 실현될 때까지 아무도 간섭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이상적인 미래사회를 위해 필요한 '초월적 의식(supra-consciousness)' 또는 '초월적 마음(super mind)'의 진화 가능성을 말한다. 지금의 우리 마음이나 의식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갖는 초월적 의식이나 마음의 진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Rogers, 1980). 그러나 만일 그러한 초월적 의식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체발생적인 것이 아닌 계통발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환경적, 객관적 조건의 필요에 적응하는 계통발생으로 그러한 진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로저스는 그러한 초월의식의 확대 또는 확장은 이상적 인간공동체를 실현해 봄으로써 가능하게 되리라 믿었다. 인간의식의 초월의식화와 인간사회의 이상화는 상호작용적인 상승화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새롭게 출현할 인간(the emerging persons)'이 지향할 사회상을 그 문화적 특성으로 그려 보았다(Rogers, 1977, p.255).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리라고 본다. 즉, 개방적 인간관계와 전인적 개인의 성장과 실현을 추구하고, 어떤 조

건으로도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인간적 규모의 집단화를 모색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물질만 수요하되, 평등하게 분배하고, 사회구조적 기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일지라도 임기를 제한하고,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아 주고, 인간적 가치에 부합되는 과학적 탐구와 응용을 추진하고, 모든 학문과 예술과 사회현상에서 창조성을 소중히 하는 그러한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로저스의 이상적 문화 공동체는 우리 동양에서의 도가사상(道家思想)이 그러한 이상향과 아주 비슷하다. 로저스 자신이 도가사상에서 자기 사상의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 것은 이미 언급했거니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대한 동양학자들의 관심도 이러한 도가적 유사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기석(1967)과 이동식(1974)이 일찌기 상담과 정신분석에서 도(道)의 사상을 소개하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Hayashi 등(1992)이 일본불교와 도가사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비교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Chang과 Page(1991)는 노자사상과 선불교에서의 자아실현이론을 로저스와 Maslow의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선불교를 중국에 들여온 불교가 토착적인 도가사상과 융합되면서 탄생된 것이라 볼 때, 불교와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비교연구한 윤호균의 논문들(1982a,b)도 그 바탕에는 도가사상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영이(1991)는 인간중심 상담과 장자의 도를 비교연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사상의 한 측면을 로저스의 이론과 관련시켜본 논문이다.

도가의 사상을 로저스의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문화공동체와 관련시켜 보는 것은 후자의 한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동양 문화권 안에서 도가사상은 항상 하나의 이상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유교나 불교와는 다르게 도가사상 또는 도교(道敎)는 한 국가나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종교가 되지는 못했다. 유교국가나 불교국가는 있었으나 도교국가는 없었다. 그것은 국가차원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상이 되기에는 너무 이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로저스가 그려주는 문화 공동체는 우선 그 규모에 있어서 작은 집단 사회이다. 최소한의 정부기능으로서 필요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이어야 한다(Caspary, 1991).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그러한 제한조건 하에서만 실현가능 하다. 그러나 로저스도 노자나 장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이 인류적 사회의 시민의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인류사회 전체가 그러한 문화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로저스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이상임을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이상주의자이다.

스키너와 같은 전체주의적 이상주의자는 그의 저서 *Walden Two* (19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나 전체사회의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행동주의 심리학은 행동공학적인 사회심리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반면,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인 로저스는 언제나 개인의 편에서 개인 및 집단의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중심 상담이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둔다

는 뜻이 아니다. 로저스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가정과 학교의 문제, 기업과 종교 등 사회적 문제,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갈등과 평화의 문제까지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초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Rogers, 1987a,b,d). 참만남 집단이라는 집단 상담의 방법을 통해서 로저스가 실천하고자 한 것은 이상적인 미래사회와 미래의 인간을 위한 희망과 신념의 표현이었다. 지구상의 어떤 곳이든 참만남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서슴지 않고 찾아 다녔던 로저스에게서 우리는 한 사람의 훌륭한 상담자를 보는 것은 물론, 우리 시대가 절실히 요청하는 인간주의자, 평화주의자 그리고 불굴의 이상주의자를 보게 된다.

## VI 결 론

로저스의 상담이론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그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가? 그것은 개개인의 인간 속에 있는 잠재력을 믿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를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정신력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누구나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완전하게 기능하는 인간을 목표로 하는 인간주의적 이상주의이다. 로저스 자신은 체험을 통하여 그러한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그 한계점이 있다. 만일 그것이 로저스와 같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런 특수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상담이론은 일반 상담이론으로서의 의의가 제한되게 된다. 그것은

마치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인간중심 상담에서 훌륭한 상담자, 즉 완전히 기능하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저스와 같은 능력을 타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완전하게 기능하는 인간을 목표로 하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상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는 끊임없이 전체주의적인 가치관의 도전을 받게 된다. 문명의 발달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더 철저한 통제를 요구한다. 인간상실을 염려하는 것은 문명의 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어 가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인간관으로 볼 때 완전하게 기능하는 인간은 가장 잘 적응하는 인간이다. 가장 완전하게 사회화된 개인이다. 로저스의 개인주의는 스키너의 전체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 문명의 발달은 스키너가 예견한 전체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로저스의 인간주의적 이상주의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로저스가 이상적 문화의 사회를 말하면서 집단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사회적 변화가 개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집단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이론으로 상정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개혁론의 한 유형이 된다. 개개인의 인간을 개혁함으로써 집단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개혁을 위한 인간개혁론은 그 자체에 한계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마다 특이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인간개혁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그 문화권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형을 정립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사회의 모든 문화권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형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인간주의적 이상주의가 표방하는 '완전하게 기능하는 인간'은 각 문화권의 특수성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로저스의 이론이 함의하는 철학이 도가(道家)와 선불교(禪佛敎)의 사상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이상주의가 곧 우리의 이상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경전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도(道)의 사상이나 선(禪)의 사상은 구체적인 문화권 속에서 실현되는 사상과는 다르다. 완전하게 기능하는 인간을 우리 문화권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권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상들과 가치관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특히 유교(儒敎)의 영향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로저스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이 과학적 심리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심리학의 발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상담이론이 새로운 문화권에 적용될 때는 과학적 방법으로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로저스의 입장이라고 본다.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 개척해 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에 의거해서 확인하고 검증해 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로저스의 과학정신은 그의 이론이 새로운 문화적 토양에서 싹트게 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로저스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이라는 하나의 상담이론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만이 아니라 그 이론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검증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야 한다는 과학정신 내지는 방법론까지 함축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상담이론이 갖는 철학적 함의를 음미해 보



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참 고 문 헌

- 고명규(1991) 스키너와 로저스의 상담이론 분석을 통한 절충적 상담모형 탐색,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권재운(1986) Skinner와 Rogers 이론의 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 글리크, 제임스 (박배식, 성하운 역, 1993), 카오스, 서울 : 동문사.
- 김기석(1967) "도와 카운슬링" 전국대학 학생 생활지도 상담교수연구회 보고서,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 김영실(1989) Rogers의 인간중심사상과 Buber의 '만남'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명대준(1992) Rogers와 Skinner의 상담이론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반 퍼슨(손봉호, 강영안 역, 1985) **돌, 영혼, 정신**, 서울 : 서광사.
- 부버, 마틴(표재명 역, 1977) **나와 너**, 서울 : 문예출판사.
- 안현수(1993) 인간중심상담과 성장상담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윤호균(1982a)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1) : 인간 및 심리적문제에 관한 견해," 한국심리학회 임상 및 상담심리분과, **임상심리학 회보**, 3(1), pp.35-47.
- (1982b)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2) : 심리적 문제 해결, 한국심리학회, 임상 및 상담심리분과, **임상심리학 회보**, 3(1), 49-63.
- (1983) **삶, 상담, 상담자**, 서울 : 문지사.
- 이동식(1974) **한국인의 주제성과 도**, 서울 : 일지사.
- (1986) "상담의 동양적 접근,"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315-327.
- 이영이(1991) Rogers의 인간중심상담과 장자의 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영희(1985) "C. Rogers와 인간중심의 치료이론," **변천하는 사회 성장하는 청소년: 한국 카운슬러협회 20년사**, 한국 카운슬러협회, 461-468.
- 이형득(1993) "본성실현상담의 이론적 배경," **발달상담연구**, 창간호, 27-60.
- 표재명(1987)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최동희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자아와 실존**, 서울 : 민음사, 155-87.
- Bozarth, Jerold D.(1985) "Quantum Theory and the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179-182.
- Buber, Martin and Carl R. Rogers(1957) *Transcription of Dialogue Held April 18*, Ann Arbor, Michigan, Unpublished Manuscript.
- Capra, Fritjof(1975) *The Tao of Physics : An Explor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Modern Physics and Eastern Mysticism*, Boulder, Colorado : Shambhala Publication.
- Casparly, W. R.(1991) "Carl Rogers : Values, Persons, and Politics : The Dia-lectic of Individual and Communit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1(4), 8-31.
- Chang Raylene and R. Page(1991) "Characteristics of the Self Actualized Person : Visions from the East and West," *Counseling and Values*,

- 36(1), 2-10.
- Combs, A.(1990) "Toward a Viable Psychology of Meaning ; Special Issues : Fiftieth Anniversary of the Person-Centered Approach," *Person-centered Review*, 5(4), 449-463.
- Friedman, Maurice(1986) "Carl Rogers and Martin Buber : Self-Actualization and Dialogue," *Person-Centered Review*, 1(4), 409-435.
- Gunnison, Hugh(1985) "The Uniqueness of Similarities : Parallels of Molton H. Erikson and Carl Rog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561.
- Freire, Paulo(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 Seabury Press.
- Fuller, Robert C.(1982) "Carl Rogers, Religion and the Role of Psychology in American Cultur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2(4), 21-32.
- Goodyear, R. K.(1987) "In a Memory of Carl Ransom Rogers(January 8, 1902-February 4,1987),"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10), 523-524.
- Hayashi, Sachiko, et.al.(1992) "The Client-Centered Therapy and Person-Centered Approach in Japan : Historical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2(2), 115-136.
- Hempel, Carl G.(1966)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Heppner, P., et.al.(1984) "Carl Rogers : Reflections on His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Development*, 63(1), 14-20.
- Kierkegaard, S.(1941a)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41b) *The Sickness Unto Dea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opez, F. G.(1987) "Erikson and Rogers : Differences Do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241-243.
- Orlov, A. B.(1992) "Carl Rogers and Contemporary Humanism," *Journal of Russian and East European Psychology*, 30(1), 36-41.
- Prigogine, I.(1979) *From Being to Becoming*, San Francisco : W. H. Freeman.
- Prigogine, I. and Isabelle Stengers(1984) *Order Out of Chaos : Man's Dialogue with Nature*, New York : Bantam Books.
- Quinn, Ralph H.(1993) "Confronting Carl Rogers : A Developmental-Interactional Approach to Person-Centered Therap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3(1), 6-23.
- Rogers, Carl R.(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 Rogers, Carl R. and R. Dymond(1954)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gers, Carl R.(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95-103.
- (1961) *On Becoming A*

-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Press.
- (1969) *Freedom to Learn*, Columbus, Ohio : Merrill Publishing Co.
- (1970)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 New York : Harper & Row.
- (1972) *Becoming A Partner in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New York : Delacorte.
- (1973) "Some New Challenges," *American Psychologist*, 28(5), 379-387.
- (1977)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New York : Dell Publishing Co.
- (1980) *A Way of Being*, Boston : Houghton Mifflin.
- (1982) "A Psychologist Looks at Nuclear War : Its Threat, Its Possible Prevention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2(4), 9-20.
- (1983) *Freedom to Learn for the 80's*, Columbus, Ohio : Merrill Publishing Co.
- (1985) "Reaction to Gunnison's Article on the Similarities Between Erikson and Rog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565-566.
- (1987a) "The Underlying Therapy : Drawn from Experiences with Individuals and Groups : Special Issues : Carl R. Rogers and the Person-Centered Approach to Peace," *Counseling and Values*, 32(1), 38-46.
- Rogers, Carl R. (1987b) "Inside the World of the Soviet Professional : Special Issues :
- Carl R. Rogers and the Person-Centered Approach to Peace," *Counseling and Values*, 32(1), 47-66.
- (1987c) "Comments on the Issues of Equality in Psycho-Therap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7(1), 38-40.
- (1987d) "Theories, Peace, International Relations, Conflict Resolution," *Counseling and Values*, 32(1), 12-16.
- (1987e)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the Behavioral Scientist to World Peace," *Counseling and Values*, 32(1), 10-11.
- Schultz, D.(1977) *Growth Psychology :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 D. Van Nostrand Co.
- Skinner, B. F.(1948) *Walden Two*, New York : Macmillan Co.
- (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 Alfred A. Knopf.
- (1978) *Reflections on Behaviorism and Societ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Person-Centered Therapy in Carl R. Rogers

Young-Hee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erson-centered theory of counseling by Carl Rogers aims to realize the fully functioning person both in the client and the counselor. This objective in counseling is to be achieved by activating the self-actualizing direction inherent in each person as an organism. The counselor's role, then, is to facilitate the client for her own self-actualization.

The person-centered approach viewed as such has some philosophical implications. First, it implies an existentialist view of man with its emphasis on his subjectivity and freedom. Second, it implies a humanist psychology that accepts the free and autonomous human subject for an objective scientific investigation. Third, it implies a social man and a humanistic society, which is an ideal to be pursued through the practice of person-centered counseling in the form of encounter groups.

An attempt is made here to analyse and develop each of these philosoph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enhance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erson-centered approach as to its significance, limitations, as well as possibilities.